

「春香傳」改作에 따른 〈房子〉의 作中機能 變異樣相

郭 正 植*

목 차

1. 서 론
2. 主要 異本間의 특징 비교
3. 異本間 〈房子〉의 作中機能 變異樣相
 - 3-1. 京板本에서의 變異樣相
 - 3-1-1. 場面別 자료 분석
 - 3-1-2. 房子의 作中機能 비교
 - 3-2. 完板本에서의 變異樣相
 - 3-2-1. 場面別 자료 분석
 - 3-2-2. 房子의 作中機能 비교
4. 房子의 作中機能 變異가 지닌 意味
5. 결 론

1. 서 론

지금까지 알려진 春香傳의 수많은 異本과 빈번한 出刊은 그만큼 다양하면서도 폭넓은 讀者層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春香傳에는 系統이 다른 70여 種의 이본이 筆寫本, 坊刻本, 活字本의 형태로 유포되어 오고 있다. 필사본의 경우에는 그 전체적인 모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방각본과 활자본으로 출간된 古小說 가운데서 그 출간회수가 아주 월등하게 많았다¹⁾고 하는 사실은, 春香傳이 매우 광범위하게 읽혔을 뿐

* 경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고소설 중 주요 작품에 대한 출간회수(방각본 출간과 활자본 출간을 합한 것)를 살펴보면, 春香傳(38), 趙雄傳(22), 蘇大成傳(15), 九雲夢(13), 沈清傳(12), 洪吉童傳(10), 淑英娘子傳(10), 謝氏南征記(9), 興夫傳(7), 토끼傳(7), 薔花紅蓮傳(7)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서 고소설 출간의 대체적인 사정과 함께 독서층의 독서경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만 아니라 계속해서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었다는 방증이 될 것이다.

그런데 대체적인 줄거리에 못지 않게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문학작품인 경우 異本間의 차이는 사소한 것일지라도 소홀히 간과해버릴 수는 없다고 본다. 계통이 다른 수많은 이본들을 단일한 범주 속에 두고 접근할 때 간혹 異本에 존재하는 개별적인 의미나 특수한 성격들이 제대로 파악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동안의 春香傳 연구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 바와 같이 春香傳의 異本들을 통해 볼 수 있는 디테일에서의 부분적인 차이는 그리 대수로운 문제가 아니라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대부분 간과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춘향전 공통의 주제를 찾고자 했던 기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태 납득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도 그와 같은 접근방법에 기인한다. 그것은 이본간 내용을 엄밀하게 살피는 치밀한 독서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서 드러나는 개별적 의미를 소중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충분히 고려하는 접근방법에서 극복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내용이 다른 異本은 엄밀하게 말해서 다른 작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本稿는 春香傳의 주요 이본에 두루 등장하는 房子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작중기능을 분석하고 異本間의 차이를 살펴 그 개별적 의미를 알아보려는 데서 시도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주요 이본간의 대체적인 특징들을 방자 인물과 관련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으로 작품 문맥에 보다 밀착해서 판본에 따른 작중기능의 변이양상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각기 이본들이 갖는 개별적 존재 의미 내지는 성격을 방자인물의 기능변이 양상에 근거해서 밝혀보고자 한다. 여기서 특히 방자 인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기본적인 이유는 그가 판소리계 소설의 발생과 성장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매우 특징적인 인물 유형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2. 주요 異本間의 특징 비교

수많은 이본과 거듭된 출간을 통해서 이 땅에 ‘春香藝術’의 화려한 꽃을 피웠던 春香傳의 원류는 다름 아닌 판소리 春香歌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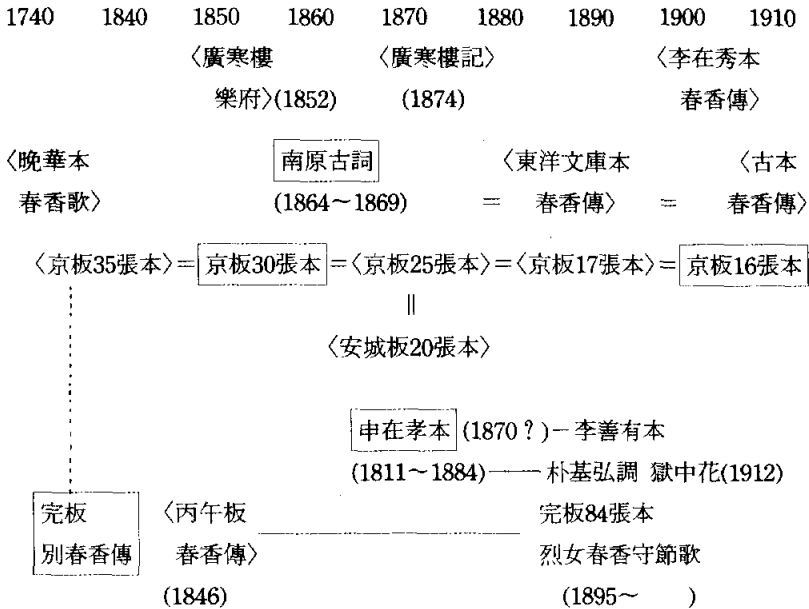
선조 후기인 18C의 숙종말, 영조초 쯤에 생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는 宣祖와 仁祖朝에 걸쳐 겪어야 했던 戰亂의 傷痕도 어느 정도 가시고 基層 庶民들의 獨自의인 文化享受의 욕구가 점차 증대되어 가던 시기였다. 따라서 판소리 春香歌는 庶民意識의 성장과 직결되는 전환기적 산물이며,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힘입은 廣大와 衙前같은 기층 서민들이 중심이 되어 음악과 연극과 문학을 하나의 집약적 표현 형태로 만들어 출현시킨 것이다.

그리고 판소리 春香歌는 다시 辭說로 정착되고 또 改作이 거듭되는 가운데서 19C末까지 그 類型의 構造로 보아 크게 두 가지 系統을 형성시켜 놓았는데 京板本과 完板本이 그것이다. 京板本이 縮略의 原理를 지향했다면 完板本은 擴張의 原理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문학적인 면에서 完板本에 비해 보다 합리성을 지닌다고 하는 京板本은, 그러나 축약의 원리로 인해 판소리의 디테일은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京板本은 南原古詞를 통해 집대성되었는데, 이는 창작의식이 매우 강한 어느 개인 작가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改作 내지는 再創作된 소설이다. 그리고 完板本 가운데서도 申在孝의 改作本(1867~1873)이 나온 후로는 中心人物인 春香의 身分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 기존의 妓生系 異本에 대립되는 非妓生系 異本을 생성시켜 놓았다. 이와 같이 春香傳의 여러 이본들 사이에는 改作者의 개작의식과 관련하여 소홀히 간과할 수 없는 차이점이 필연적으로, 그리고 아주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春香傳에는 70여 종의 이본이 있어서 이들을 모두 텍스트로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 것처럼 번거로운 작업을 감당해야 할 필요성도 없을 것이다. 本稿를 통해서 필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바는, 板本의 종류와 시간적 相距에 따르는 春香傳의 전승과정에서 〈방자〉인물의 작중기능이 어떻게 변이되고 있으며 그것이 지니는 의미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에 있다. 따라서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텍스트는 京板에서 30張本과 16張本, 南原古詞에 한정하고, 完板에서는 別春香傳(30張)과 烈女春香守節歌(84張), 申在孝本 男唱 春香歌에 한정하였다. 京板 30장본과 16장본, 完板 別春香傳과 烈女春香守節歌는 각기 상당한 기간에 걸친 시간적 相距가 있는데다가 그 사이에 판소리에 대한 양반층의 애호에 힘입어 양반의 嗜好에 맞게 그 내용이 다듬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南原古詞는 鏡판에 속

4 韓國文學論叢 第11輯

하기는 하되 판소리 사설을 종합, 집대성한 春香傳의 대표작으로서, 신재효본 春香歌는 개작자 자신의 개작의식과 관련한 春香의 신분상승으로 말미암아 春香傳의 계승에서 아주 異質의인 異本을 생성시켰다는 점에서 함께 다루기로 하였다. 특히 신재효본 춘향가는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의 선정과 관련한 이해를 돕기 위해 春香傳의 전승관계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²⁾



春香傳에서 房子 인물의 등장은 이미 晚華本の “翩翩青鳥乍去來”와 같은 기록을 통해서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고, 廣寒樓樂府에도 “官僮隔水喚春娘”이라 하여 房子가 이도령과 춘향의 사이를 결부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李道令과 春香의 結緣過程에 해당하는 전반부에서 부수적 인물로

2) 金東旭, 金泰俊, 薛盛瓊, 春香傳比較研究, p. 26, 三英社, 1979. 한편 申在孝 改作本이 完板 烈女春香守節歌에 先行한다고 보는 金東旭 博士의 주장에 대한 反論이 제기된 바 있으므로 이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金泰俊, 申在孝의 「春香歌」研究, 韓國小說研究, 太學社, 1983)

등장하기 때문에 작품 전체의 줄거리에 비해 그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작품의 전반부를 몇 개의 場面으로 나누었을 때, 텍스트 사이에서 대략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房子의 등장이 대개 李道令과 방자의 山川景概 풀이 場面에서부터 이루어지나 南原古詞의 경우에는 그에 앞서 李等使道가 到任한 후 天下醜物로 冊房守廳을 들게 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이 때 그는 外面描寫를 통해서 상당히 회극적인 인물로 설정되고 있는데, 맵시있고 영리한 인물로 행동하게 하는 申在孝 改作本과는 그 성격이 처음부터 다르게 나타난다.

둘째, 거의 모든 異本들에서 山川景概 풀이 뒤에 이도령이 곧장 방자를 앞세워 光汗루로 거동하는 데 대해, 다만 完板 烈女春香守節歌에서는 이도령이 巡行次 使道の 승낙을 받는 장면이 있어 구별된다.

셋째, 이도령과 방자가 廣寒樓에 當到하는 과정에서의 山川景概 풀이는 京板 16장본과 南原古詞, 申在孝本에 존재하고 다른 텍스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넷째, 춘향을 招來하는 장면에서 다른 텍스트와는 달리 完板 烈女春香守節歌에서는 房子와 함께 더욱 순종적 인물인 通引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방자의 역할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다섯째, 춘향이 光汗루에 來到하는 장면은 申在孝本 男唱 春香歌에서는 이도령과 춘향이 서로 식구를 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光汗루에서의 두 사람의 相面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때 춘향은 다만 香丹을 통해서 이도령의 인물을 알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完板 烈女春香守節歌에서는 방자가 춘향을 부르러 갔다가 처음에는 거절 당하고, 다시 방법을 바꾸어 춘향을 집에까지 찾아가서 月梅의 승낙을 받아 光汗루로 招來하게 된다.

여섯째, 이도령과 방자가 춘향 집을 찾아 들어가는 장면에서는 京板 30장본과 16장본의 경우, 이도령 또는 방자가 문 밖에서 月梅를 부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 南原古詞에서는 방자가 직접 춘향에게 이도령이 왔음을 알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完板 30장 別春香傳은 京板과 마찬가지로 이도령이 직접 月梅를 문 밖에서 부르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申在孝本은 이도령이 방자를 앞세우고 춘향집에 이르렀을 때, 月梅가 발자국 소리를 듣고 나오

는 것으로, 그리고 烈女春香守節歌는 방자가 직접 춘향을 부르자 춘향이 월매에게 이를 알리고 이에 월매가 이도령을 안내하는 것으로, 다양한 변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도령과 방자의 山川景概 풀이, 이도령의 舉動풀이와 춘향의 出現, 방자와 춘향의 酬酌, 이도령이 방자를 앞세우고 춘향 집을 찾아가는 장면 등이 모든 텍스트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이들을 통해서 방자의 작중기능을 분석, 비교할 수 있다.³⁾

3. 異本間 〈房子〉의 作中機能 變異樣相

자료 분석의 편의상 우선 경판본과 완판본을 구분해서 다루기로 한다. 그리고 각기 텍스트에서 〈방자〉의 역할과 관련되는 場面단을 차례로 뽑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작중기능을 살펴 그 변이를 알아보기로 한다.

3-1. 京板本에서의 變異樣相

3-1-1. 場面別 자료 분석

1) 이도령과 방자의 山川景概 풀이

경판 30장본과 16장본, 그리고 南原古詞에서 공통되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도령)네고을구경쳐가어되어되가요흔고(방자)평양부벽루히두미월당...중략...
 죠타키오티결승훈경기는남원광한루경치을싸물길업습기팔도의유명키와일컷기
 를쇼강남이라키노이다(도령)만일네말갓홀진티제일강손인가시부니아모키는광
 한루구경쳐로보진거헝키라

3) 이 밖에 텍스트의 성격과 관련된 주요 특징으로서, 京板 30장본과 16장본, 南原古詞와 完板 別春香傳이 이도령을 먼저 서술하고 있는 데 비해, 申在孝本과 烈女春香守節歌는 춘향을 먼저 서술하고 있다. 또 不忘記는 대체로 춘향이 이도령과 수작하는 과정에서 받아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申在孝本에서는 이를 月梅가 받아서 춘향에게 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烈女春香守節歌에서는 아예 탈락되고 나타나지 않는다.

위의 내용은 경판 30장본과 16장본에 거의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다만 南原古詞는 방자의 대답에서 중국의 여러 유명한 경지를 읊은 詩篇들이 인용되고, 뒤에 우리나라의 명승지가 소개되는 만큼 분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앞의 공통 부분에 이어 방자와 도령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가 한 차례 더 반복된다.

(방자)아이에이런분부는심심도마음소서소분부지엄호신줄변연이알면서
 슴람꼴니라고구경가조호음노닛가(도령)우리단두리호는일을알니가뉘잇스리오
 소분부는넘너마라니다슈해호마

2) 春香 招來過程에서의 이도령과 방자의 酬酌

세 本에 공통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도령)저건너저저시무엇신고(방자)어디무어시뵈노이잇가(도령)업다저괴피
 는저시무어신고아마도선네호강호옛는가보고나(방자)봉니방장영종삼신손아니
 여든선너어이이곳의잇스오리잇가(도령)그러면그무어시노금이냐(방자)금심여
 슈라호오너려쉬아니여든어이금이나리잇고(도령)그러면옥이냐(방자)옥출근강
 이라호오너근강이아니여든옥어어의잇스리오(도령)그러면무어신고희당화
 나(방자)명스십리아니여든희당화가어이이곳의잇스리오(도령)그러호면귀신이
 나(방자)북망손이안이여든귀신이이곳의잇스리잇고(도령)그러호면그무어시니

경판 30장본과 16장본은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이 부분에 공통적이지만, 南原古詞에서는 양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에 못지 않게 앞의 두 本에서 볼 수 없는 내용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공통 부분에 이어서, 앞의 두 本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비해 南原古詞는 實利를 구하는 방자로 인해 상당 부분 확장되어 있다.

(방자)다른저시아이오라본음기싱월미팔춘향이로쇼이다(도령)얼스조효시고
 제본니창네면호변구경못할손나방직야네가불너오너라

(방자)...중략...저괴저그니되는저쳐너를무르시나보마는츠시늬음방초승화시
 라스부가규슈가추천호라왔노보외다(도령)이아회야그러치아니호다...중략...너향
 처너가그러키는만무기리호니너는이곳의셔...중략...스람죽겠다바로닐러라(방자)
 진경그리알고저호시면바를타로고호리니공식시가잇셔야호지그러치아니면북극
 면문의발팔호고옥데금불이명호셔도바로고치못호깃소(도령)그래서범연히홀가
 보나너셔울가거든세간밋현호라호고돈오빅냥...중략...모도공통모라웁스러다가
 들슈이너를다즐거시니재발덕분바로닐러라(방자)저야회는...중략...본음기싱월미

팔춘향이오...중략...아직서방경치아니코이시나성품이미물하고소치고교만하고
 도스기가영소보던북극문문의턱건줄노알외오(도령)이억방즈아우리두리의형대
 ㅎ즈방즈동싱아날살려라제가만일창닐진티호변구경못홀소나네가밧비불러오라
 (방자)이런말씀다시마오...중략...만일이말씀이소또귀우명으로다름박질ㅎ여드러
 가량이면도련님은계관이없거나와방즈이놈은팔즈업시늘기시니그런싱각과이런
 분부는꿈의도마옵쇼서(도령)...중략...니일부터관청의나는거슬도모지휼스러다가
 님피마로즐은즐은문거다가방즈형님딕으로뿡진상알외오하고모도다송일거시니
 다른님너는꿈의도말고어서밧비불러오라계발덕분불러오라...중략...속결업시쥬
 기시니제발덕분비나이다날솔리시오(방자)도련님말씀이하져려ㅎ시니불너논오
 려니와나종의중병이나면그는나의알비아니원다또계집말부른당단이나아옵는
 잇가(도령)...중략...방즈형아쥬려님의아들놈소리말고나논딕시불너오라편것지
 불너오라

3) 房子와 春香의 酬酌

세 本에 공통적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방자)춘향아춘향아(춘향)그뉘라셔부르노노(방자)큰일났다어셔가즈밧비가
 즈(춘향)이몹슬아회야사람을그티지놀너노노니쥬천을ㅎ던지그티을뵈던지...중
 략...너더러도령님 의논어바치라ㅎ더냐(방자)쥬천인지그빈지는근한곳의서할거
 시지광한루갓가운요런속바라진궁둥머리의미고뉘라더야소즈쥬도련님이순천
 경기구경코져ㅎ여광한루의올났다가녹을쥬쥬천ㅎ난네저등을삼혀보고성화갓치
 불너오라분부지엄ㅎ너아니가든못ㅎ리라네만일갓스면우리도련님이바로진궁둥
 이라네향기로운말로쥬친물엄을민든후의네향노숫것가리을뿡져궁썩혀다가돌돌
 마라셔원편볼기작부쳐시면남원거시다네거시될거시니그아니쥬홀순나

그러나 南原古詞는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분량으로 확장되어 있
 으며, 또 他本에 비해 방자가 춘향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보다 적
 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방자)...도련님이원악아는법이모진바람벽썰고나오논쥬방밧겘도람의즈척이
 오또는네가잘못호거시...중략...요로똥속비야진언덕의셔점지아년아회년이들너
 날낙ㅎ며벌벌발겨갈쥬시무슈ㅎ니미당가견아회놈이눈물이아니상홀소나...중
 략...분부지엄ㅎ시니쥬분부라아니?고뉘령이라거슬소나잔말말고어셔?즈바른
 티로말이지도련님이외입당이라...중략...네덕의다도판청고즈나ㅎ여거드러거
 려호강쥬ㅎ여보조고나

그리고 여기서 南原古詞는 춘향을 보다 강한 성격의 인물로 설정하고 있
 는데, 이는 앞 장면에서 방자의 설명을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춘향)아니가면눌을엇지 ㅎ ㅎ 날노죽이나싱으로발기나비오는 퇴희쓰리쳐로부
 되치지말아날구즌날기삿기쳐로지근지근이구지말고말 ㅎ기슬호니어셔이거라
 (방자)네가요티지보동희고단단 ㅎ나양세고슈세나야모커나견티어보아라잔속을
 주셔히물났다도련님이눈가쪽이핑핑흔거시독살이우히업고만일슈의틀리면네어
 미월티가지싱급살을먹을거시니네아니가면그만잇슬듯시부냐되지못홀스양말고
 어셔 ㅎ ㅎ

4) 이도령과 방자가 춘향집에 가기까지의 장면

세 本에서 대체로 공통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

(도령)히가엇마누갓느니(방자)이게야학일이도천쫓 ㅎ엿느이다(도령)어제는
 저날이뵈덜티를치던지그리슈히가던이오날은뉘라셔뒤홀결박 ㅎ엿느지어이그리
 더퇴가는고날이용심도불량 ㅎ다방인지무엇신지히가얼마누났앗느요(방자)일나
 합지 ㅎ고월출동녕 ㅎ느이다

그러나 南原古詞는 다른 장면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적인 확장을 통해서 몇
 차례 대화가 더 이어지며, 他本에 없는 惡戲 장면이 첨가되어 있다.

(방자)남은아모리되던지나는쫓소의춘향이얼아문이이시면접흥년인들기탄홀
 가가조소리작작 ㅎ오소또분부의가라 ㅎ엿소왜장이나면가기는 시로이싱슴질이날
 거시니페문이나현후의스또취침기드려서가거나말거나 ㅎ음소셔(도령)그러 ㅎ
 면돈판이나니여다가문닷는놈인정쫓고페문선하 ㅎ여보조(방자)초경삼점페문인
 더초흔페문웬일이오페문선하한단말듯도보도못 ㅎ엿소제발더분삼간만참으시오
 (도령)방조야동현의퇴등흔썩보아라(방자)야심인적 ㅎ고월빅풍청 ㅎ니가라 ㅎ오
 말나 ㅎ오...중략...(방자)야반부레오구식친구라 ㅎ니심심파적 ㅎ량으로골치기나 ㅎ
 나식 ㅎ며가세(도령)방조야싱하체통의조 ㅎ고발서통치못흔거시니가손을생져고
 나(방자)오라청청이맛보게피추평발아회드리야심중의괴통 ㅎ니무어시망발이며
 주니뒤히냥반두조 ㅎ뻗컷나말이이러 ㅎ니체증일세그리말소속담의니 ㅎ기틀시로
 ㅎ가난디기 ㅎ로기는계격이라 ㅎ러니와주니계집 ㅎ라가논티나는무슴씩으로 ㅎ라
 가단말인가(도령)네말이모도정의지언이로고나담을뵈고벽을쳐도이판의논그리
 아니 ㅎ느니라이고티아들이야오소의빔뜨기는외탁 ㅎ여그러흔가방조동심아어셔
 가조(방조)놈니도령을속이라바른길을두고소 ㅎ오츄틀들너가니)...중략...(방자)두말
 말고이집으로그저속드러들가오...중략...(도령)아모려도의심되니네문져압셔드러
 가라(방자)그리 ㅎ면드러가다슈쇄흔후나오리이다(도령)다슈쇄란말이웬말이니
 슈상 ㅎ고뵈낭흔놈까지로드러가조

5) 춘향집에서 房子와 道令이 月梅와 수작하는 장면

이 장면에서 경판 30장본은 이도령이, 그리고 16장본은 방자가 먼저 춘향의

어미를 찾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南原古詞에서는 방자가 곧장 춘향을 불러 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경판 30장본과 16장본의 공통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월매)이어인일이노스 초계서만일아르시면우리모네다죽을지니밧비도라가라
(도령)관계치아니호니밧비드러가자(월매)잠간다너가라

이에 비해 南原古詞에서는 방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월매와의 대화에 있어 방자는 주도적인 입장에 선다.

(방자)이이춘향아즈너세엿는나도런님와거시니밧비나오너라(월매)내가향교방지나밤중의웨와셔야단호는다발길년의뵈드리를돌너메고나온년석?특니관속년석술을춤아보기슬터라(방자)이이춘향아이거시병이로다그말을너의어마니드러아니호엿나보고너여보마노라남의말을듣고말을호시오뉘아들놈이잘못호엿나드러보시오...중략...킵년괴약언약호고오날전녁오마고씩집의산병마최듯스과전의중즈굽마최듯서로맛쳐어두고날드러호가지로가호호시기로되시고은일이지뉘제할미호롬이잘못호엿스그웨공연이욕을더럭더럭호여가시오(월매)목소리롤드르니네로구나나노넨줄을아지못호고잘못호엿다즈라가논아희드론물나보게되엿고나노화말라너의어머니호고나고정동잡일다

3-1-2. <방자>의 작중기능 비교

이제 앞에서 장면별로 분석한 일련의 자료를 가지고, 세 本에 나타나는 房자의 작중기능이 어떻게 같고, 혹은 달라지고 있는지를 京板 30장본을 기준으로 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作品의 前半部에서 이도령과 춘향의 결연과정에 介入하는 방자의 基本的인 役割은 上典인 이도령이 취하는 행동반경 안에서 그를 따르고 돕는 일이며, 따라서 그는 附隨的인 人物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春香傳의 여러 異本에 두루 적용되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기본적인 역할의 수행과정에서 그가 보여주는 세부적인 차이는 여러 異本간에 존재하는 방자를 결코 同質的인 인물로 파악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먼저 京板 30장본에 등장하는 방자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서 각성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장면 2)에서 이도령과 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山川 景概 풀이와 장면 3)에서 방자와 춘향이 酬酌하는 내용을 보면, 이는 분명히

上典에 대한 悖德이며 궁극적으로는 당위적 규범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결국 방자가 과거의 인습적인 관념의 틀을 깨고 점차 각성한 인간으로서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가 여전히 상전에 하속되는 신분임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道具的 存在로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 이도령과 춘향의 結緣에서 방자의 사전 개입 자체는 타율적인 것이 었더라도 역할 수행의 과정에는 자신의 自律的 意志가 크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미 각성한 인간으로서 그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한다. 그리하여 상전의 명령에 따르는 경우에도 단순히 下手人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작용시켜 임기응변에 능한 인물로 행동한다. 우리는 그의 對象에 대한 批判的 認識⁴⁾과 함께 비록 소극적이고 간접적이긴 하지만 현실적, 물질적 實利⁵⁾를 추구하는 행동양식을 통해 새롭게 변모된 奴隸像을 보게 된다. 결국 이러한 심리적, 의식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방자는 이도령과 춘향을 중심인물로 하는 사전 전개에서 自主的 意志를 지닌 中間者로 개입하게 되고 그의 역할에서도 어느 정도의 독자적 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방자의 개입은 質的인 變化를 초래하여 기존의 兩者關係(dyad)가 三者關係(tripartite)로 나아가게 한다. 요컨대 作中에서 房子는 비록 부수적 인물로 등장하더라도 단순히 上典의 手足과 다름없는 道具的 存在가 아니라 내면적으로는 독자성을 지니고 일차적인 긴장체계에 제3자로 개입하는 中間者 인물⁶⁾이며, 거기서 기본적으로는 案内者的 機能을 수행하되 부차적으로는 상층에 대한 批判者的 機能까지도 함께 수행한다.⁷⁾ 그리고 비판자적 기능이 副次的, 消極的이라는 점에서 그는 여전히 긍정적 인물로 이해된다. 그는 다름 아닌 諧謔의 유능한 演出者인 것이다.

한편 京板 16장본은 방자의 작중기능에 관한 한 京板 30장본과 별다른 차

-
- 4) 방자의 대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장면 2)와 3)을 참조할 것
 - 5) 장면 3)의 “우리도런님이바로신궁둥이라네향기로운말로초친물염을민든후의네항나
숫것가랴을뿔적궁약혀다가돌돌마라서원편불기얹부쳐시면남원거시다네거시될거시
니그아니쵸홀손나” 같은 경우에서 엿볼 수 있음.
 - 6) 중간자 인물의 개념과 작중기능에 관한 자세한 이해는 拙稿, 古小説의 中間者 人物에 관한 研究(慶星大學校 論文集 第11輯 3卷, 1990)를 참조할 것.
 - 7) 안내자적 기능은 사전전개와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이루어지는데 반해, 비판자적 기능은 주로 개별적 성격을 지닌 삽화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런데 南原古詞에서는 방자의 중간자로서의 기능이 더욱 철저하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장면 1)의 산천경개 풀이를 보면 방자가 使道の 분부를 빙자해서 이도령을 애태우게 하거나 자신에게 미칠지도 모르는 禍根을 미리 없애는 등의 극히 교활한 인물로 변이되어 있다.⁸⁾ 또 장면 3)에서 방자가 이도령을 상대로 사뭇 탄청을 부리거나 함부로 거짓을 고하거나 하면서 더우기 물질적 보답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을 보면, 사전전개와는 무관하게 방자의 역작용 내지는 부정적 측면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방자는 물질적 이득에 못지 않게 支配와 從屬이라는 신분관계에 있어서도 놀랄만한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상전과의 끈질긴 싸움을 통해서 그와 의형제가 되고 형님으로 불려지게 되며, 마침내는 이도령의 生死가 방자에게 달려있다는 告白을 받아낸다. 더우기 장면 4)에서는 他本에 볼 수 없는 惡戲 모티프가 있어 상하 신분관계에 대한 심각한 의식의 변화를 짐작케 한다. 봉건적 신분제에 대해 권위나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방자는 다만 맹목적인 순종만을 거부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다. 그의 생각과 행동의 배후에는 상전에 대한 비판 의식이 더욱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보다 일관성을 띠고 있으며, 또한 단순한 개인적 범위를 넘어 社會性を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것이다.⁹⁾ 방자의 이와 같은 자아의식과 비판정신은 작중기능이란 측면에서 스스로를 개체적 존재, 곧 독자적인 인물로 행동할 수 있게 한다. 그 결과 방자는 두 중심인물의 내적 긴장체계에 제3자로 개입하여 '긴장관계의 해소'라는 일차적 사건 해결에 긍정적으로 기능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전을 상대로 적극적인 비판이나 물질적 實利의 추구하고 같은 부정적인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다만 이도령과 춘향의 결연이 방자의

8) 한편 방자가 자신의 신분이나 현실장면과는 어울리지 않게 중국의 蕭湘八景詩를 비롯한 李白, 杜子美 등의 漢詩를 다수 인용하고 있는 데서도 그의 변모된 모습을 엿보게 한다.

9) 상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春香, 月梅에게서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춘향과 이도령의 광한루 문답을 참조할 것.

주도적 역할로 성립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볼 때¹⁰⁾, 방자의 안내자적 기능은 그의 비판자적 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요컨대 방자의 개입에 의한 三者關係를 통해서 南原古詞의 특징적 사실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중간자 인물인 방자의 二重的 機能, 즉 결연과정에 따른 案内者的 機能과 상층에 대한 批判者的 機能 가운데서 오히려 부정적 측면에서의 批判者的 機能¹¹⁾이 더욱 철저하게 수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그는 흔히 부정적 인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경험이나 갈등 또는 변화된 의식을 엿볼 수 있게 된다.

3-2. 完板本에서의 變異樣相

3-2-1. 場面別 자료 분석

1) 이도령과 방자의 山川景概 풀이

完板 別春香傳과 烈女春香守節歌에는 어느 정도 공통 부분이 존재하고 있지만, 申在孝本 男唱 春香歌에서는 그 내용이 상당히 달라진다.

(도령)니곳경쳐어더미야(방자)글공부세우논도령님이경쳐아라무엇하시랴오
 (도령)어허니늬네모른다시중천근니티빅은치석강의놀라잇고적벽강츄야월의쇼
 주점노라쓰니안니노든못하시라(방자)서울노일을진디주문뵈니다라칠성암정연
 암세금경이엇더호은지물나와도질나도오십삼관중의남원이라호읍난곳의광홀누
 라호은곳지들람죽호다호읍니다(도령)광홀누구경가계힘장을치리라

이는 別春香傳의 내용이지만 烈女春香守節歌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巡行次 이도령이 使道の 승낙을 받는 장면이 있어서, 이같은 배려가 사전전개의 방향과 어떻게 관련될 것인가 궁금해진다고 하겠다. 그런데 申在孝本은 이 장면에서 다음과 같이 이도령에 의한 일방적인 진행을 보여준다.

(도령)방자야(방자)예(도령)네고을광한루가경개가유명타니오늘은귀경가게

10) 이도령과 춘향의 結緣에 있어 방자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이다. 이 점은 春香傳의 여러 異本들에서 공통적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방자는 三者關係에서 和解者가 아닌 案内者로 기능할 수밖에 없게 된다. 화해자는 그 역할에서 더욱 적극성을 요구한다.

나귀안장지어오라

2) 春香 招來過程에서의 이도령과 방자의 酬酌

이 장면에서 세 本은 각기 다른 특색을 보이고 있는데, 別春香傳이 앞에서 살핀 京板本의 공통 부분과 대등소이한 데 비하여 烈女春香守節歌에서는 通引과 방자가 함께 등장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방자의 역할이 그만큼 축소되고 있으며, 또한 申在孝本에서는 앞의 장면과 마찬가지로 이도령에 의한 일방적 진행으로 말미암아 방자의 역할이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차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도령)저건네화유간의알은알은호는거이무엇신지알것노아(방자)과연분명도로논이다(도령)금이야옥이야(방자)금심여슈안니너든금이어이온당호머옥출곤강안이어든옥이어이엇스릿가(도령)네말리글헐진티신선이머귀신인이다(방자)영쥬봉니안이여든신선오기만무호고천음우실안이여든귀신잇갓고이호여이다(도령)네말이그러홀진티네경녕무어인이다(방자)이고을기심월뫼쌀춘향이란계집아희나지면쥬천호고밤이면풍월공부호와도도호기로일읍의방호호여이다.

(도령)통인아(통인)예(도령)저건네화류쥬의오락가락헛쥬헛쥬얼는얼는호는게무어신지자서이보와라(통인)다른무엇안이오라이골기싱월뫼쌀춘향이란계집아희로소이다(도령)장이쥬타홀용하다(통인)제어미는기심이오나춘향이는도도하야기싱구실마다하고...중략...어렵쳐자와다름이업난이다(도령: 방자를 불러)들은쥬기심의말이란이급피가불러오라(방자)설부화용이남방의유명기로...중략...급천하지절식이요단고여중군자오니황공하온말삼으로초래하기어렵니다(도령)방지야네가물각유쥬를몰르난쥬다...중략...잔말말고불너오라

(도령)저건네화림속의추천하는저여자가치녀이나신부이나(방자)본부퇴기월매의말춘향이라하나이다(도령)퇴기의말이며는한번귀경못할소나네가가서불러오라(방자)도령님분부수화물피할터이로되이분부거행키는극난한사정있소월매라하는계집...중략...사십이넘은후의성천총을작배하여자식을보려하고지리산각사찰의백일산제시주불공...중략...공교히포태하니양반에게들은행실태교를하러하고석부정불좌하고할부정불식하여십삭차서말당으니...중략...일동일정하는행실사부너지않지요대비녕어숙신하고외인상통아니하니사또가부르셔도올지말지하옵는되도령님이부르셔서울울오로리까(도령)자색이그러하고행실이그렇다니희한한말이로다글할수록더불테니어서가불러오라

3) 房子와 春香의 酬酌

여기서도 세 本이 각기 특색이 있으니, 別春香傳이 대체로 京板本의 내용과 유사한 데 비해 烈女春香守節歌는 他本과 달리 방자가 두 번씩이나 이도령의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다.¹¹⁾ 그리고 申在孝本은 그 표현이 他本에 비해 훨씬 점잖을 뿐 아니라 방자의 역할도 크게 약화되어 있다. 따라서 광한루에서의 이도령과 춘향의 만남도 他本과 달리 이루어지지 않는다.¹²⁾ 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방자)취방도령분부너너를급피불넙신다(춘향)너더러...중략...종기리시열시
 짜뜻야외뵈치라던야(방자)츠헌을하라이면내집후원의서홀거지지...중략...빅능버
 신두발길노 빅운간의노닐 적의물명주속것갈리동남풍의펄넝펄넝박속갓튼네솔겨
 리 빅운간의희듯희듯하여도령님이네턱도잠간보고정신이온미하야너를급피불너
 시니네어이거역하리네교퇴한번의너의슈로할티있다시양말고뵈뵈비가주

(방자)여바라이익춘향이(춘향)무슨소리를그짜우로질너사람의정신을놀니단
 야(방자)이익야말마라이리났다(춘향)이리란이무슨일(방자)사또자제도령님이광
 한누의오섯작가너노난모양보고불너오란영이났다(춘향)네가미친자식일다도령
 임이엇지나를알어서부른단마라나이자식네가니마를중지리시열짜뜻하야너부
 다(방자)안이다니가네마를할이가업시되네가글체니가글야너글은너력을드러보
 와라제집아히형실노추천을하량이면...중략...도령임이보시고너을불오시계니가
 무삼말을한단말가잔말고건네가자(춘향)네마리당연하나오나리단오이리라비단
 나썩이라...중략...설혹니말을할지라도니가지금시사가아니여든여렵사람을호리
 취거로부름이도업고부른티도같이도업다당초의네가말을잘못드른비라¹³⁾-(춘
 향)너왜또오나나(방자)황송타도련임이다시견갈하시더라니가너를기심으로알미
 아니라드른니네가글을잡한다기로청하노라여가의잇논쳐차불너보기청문의고히
 하나혐의로아지말고잠간와단여가라하시더라

(방자)이아춘향아너보완지오래구나노모시하잘잇나냐(춘향)너어쨌왔나냐(방
 자)사또자제도령님이광한루귀경왔다추천하는네저동을바래보고대혹하여불러
 오라하셨으니나를따라어서가자(춘향)서울계신도령님이내이름을어찌알며설령
 알고부르란들네가나를놀로알고부르면은썩갈줄로당돌히건너온다천만부당못될
 일을잔말말고건너가라(방자)도련님은사대부요너는일개천인이라네아무리방색
 한들어니가고견딜쏘냐(춘향)명분도중커니와예법도중하니라내가비록천인이나

- 11) 광한루에서의 이도령과 춘향의 만남은 방자를 통한 이도령의 뜻에 의해서라기보다 춘향 자신의 마음과 용꿈을 꾸고 난 월매의 승낙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이다. 월매는 이 때 후한자로서 적극적인 개입을 보여 준다.
- 12) 申在孝本에서 이도령과 춘향의 만남은 이도령이 춘향의 집을 찾음으로써 이루어 지는데, 이에는 춘향 자신의 보다 적극적인 의사표명이 있었던 것이다. 즉 춘향은 향단으로 하여금 이도령의 인물됨을 살피게 하여 알고 난 다음, 이도령이 보낸 “綠珠遇石崇 紅拂隨李靖”이란 시구에 “文王求呂尚 皇叔訪孔明”이라 화답하였다.
- 13) 여기서 방자가 “이편의복기여광한누로도라와도령임계엇자오니”, 도령이 “기특한사 람일다언즉시야로되다시가말을하되이러하여라”라고 함으로써, 뒤의 사건이 이어지 게 된다.

기안탁명한일없고여염의처녀명색백주대도주인중의무슨면목추켜들고너와함께
가자느냐(방자)내속이저러하니가잔말은아니하나좋은홍정농치것다...중략...팔자
좋은절대가인풍류명사총첩되어입는것이능라금수먹는것이고량진미마마님아내
씨님도치의독고행차그아니좋은손가오늘날이 기회가시호시호시호불재랜되내아
니가려하고마다마다저리하니그속을모르것다연소하신도령님이한번불러두
번불러종시거역하거드면필경의분을내어너의노모잡아다가무수악형하거드면무
남독너네소견의마음이어떻컨나내가이리권하기는위초요비위초라너위하여하는
말을암만해도안들어니가기는간다마는정녕이또올테니염려는놓지마라(춘향)아
자제좋은기구무슨것못하것나탈나고안나기는네구변의매었다천번오고만번와도
나는아니갈테이니네알아서네하여라

4) 이도령과 방자가 춘향집에 가기까지의 장면

京板 30장본, 16장본, 南原古詞에서와 마찬가지로 別春香傳과 烈女春香守
節歌에는 이 장면이 대화형식을 빌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데 반해 申在
孝本에는 극히 간략한 서술형식으로 되어 있다.¹⁴⁾ 그리고 烈女春香守節歌에
서는 이도령이 춘향의 집을 찾아갈 때 방자 외에 通引도 함께 앞세우는 것
으로 되어 있다. 別春香傳과 烈女春香守節歌에 공통되는 부분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도령)오날히가어년씨요(방자)동의셔아귀터나이다(도령)어허이놈패심ㅁ다
셔의로지는히가동으로도로가랴고다시금살피라(방자)일낙황혼니로쇼이다(도
령)퇴령을기다리라

그리고 申在孝本을 제외한 모든 異本들에 나타나는 晝冊 풀이는 특히 完板
烈女春香守節歌의 경우, 양적인 확대와 함께 이도령에 대한 방자의 비판적
시각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령)...중략...(방자)여보도련임천황씨가목썩으로왕이란말은들어서되썩썩으
로왕이란말은금시초문이요(도령)...중략...(방자)여보하달임이드드시면썩썩놀니
실거진말도듯것소(도령)...중략...(방자)여보도련임결잔이천자는웬이리요(도령)...
중략...(방자)소인놈도천자속은아웁니다(도령)네가알드란마린야(방자)알기를일
르것소(도령)안다하니일거바라(방자)예드르시오(下略)

14) 申在孝本에서는 “식반을먹은후의폐문하고퇴령나서상방퇴축한연후의방자를앞세우
고춘향집을찾아갈제”로 나타난다.

5) 춘향집에서 房子와 道令이 月梅와 수작하는 장면

이 장면에서 別春香傳은 춘향의 칠현금 소리를 듣고 이도령이 글 두귀를 읊고 나자 月梅가 이를 듣고 나온 것으로, 烈女春香守節歌는 먼저 방자가 춘향의 방 앞에 가까이 가서 춘향을 부르는 것으로, 그리고 申在孝本은 月梅가 인기척에 놀라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 상당한 변이를 보여준다. 이를 차례대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월매)진동인가선동인가(도령)선동일년이함미집숨니작ㅎ기로나잇노라(월매)이게유가이안나라이아린형화춘을츙조갑쇼(도령)니일경선동이안니로시(방자)니골소츙제도령님니춘향구경와겨신니잔말말고풀러가쇼

(방자)이위춘향아잠드러야(춘향)네엇지오나(방자)도련입이와겨시다(춘향)이고어문어무슨잠을이더지집피지무시오(월매)아가무어슬달나고부르난야(춘향)뉘가무엇달니엿쇼(월매)그러면엇지불너는야(춘향)도련입이방지모시고오셔쇼(월매)뉘가와야(방자)사또자제도련입이와겨시오(월매)상단야(향단)네(월매)뒤초당의좌석등축신칙하여보견하라(방자)저기오난계춘향의모로쇼(월매)그시의도련입문안이엇더ㅎ오(도령)춘향의모이라계평안한가(월매)예겨우지니웁니다오실줄진정물나영접이불민하온이다(도령)그형이가있다

(월매)여봐라이자식아네키가저만하니대장인사알테인되외정없는남의집의지침도아니하고네집같이들어오니그런행실있겠나(방자)엄세말씀웁쇼마는양반앞의선하인이계임의로할수있쇼(월매)너모신어편양반너와함께와계시냐(방자)사또자제도령님이춘향을포문하고불러보기미안타고나와함께나오셨쇼(월매)누추한이내집의도령님나오시기이런생광잇것난가이리오오이리오오(도령)자네딸은어디갔나(월매)...중략...도령님오시난뒤부끄러움못이기어내방의가숨었나(도령)내가오늘여기오기난저를보자온길이니어리잠잔오라하쇼(월매)이아아기계있나사또자제도령님이너를보자오셨으니어서이러들어오라(도령)자네딸이몇살인가(월매)임자사월초파일의이자식을낳았지요(도령)어허신통하네...중략...광한루의다려다가백년가약뱃을터나노모있난여염여자임의호래할수없어자네허락들자하고자네찾아나왔으니자네의사어떠한가(월매)...중략...한번보고바리시면청춘백발두목숨이그아니불쌍하오(도령)자네그게웬소린가...중략...자네만일의심하여내말곧이안들으면혼서지난못할터나불망기를하여준세(월매)우리모너평생대사이한장의매였으니심심상지잘두어라(월매)야간이라섬서하오(도령)천만의외말이로쇠(월매)옛소약주집수시오(도령)주주색반이라하니자네가먼저먹쇼...중략...이것이합환주니자네딸이먹으라쇼(월매)백년해로하자하고일배반분하였으니사양말고다먹어라

3-2-2. 〈방자〉의 작중기능 비교

그러면 다시 完板本 계통에서 〈방자〉의 작중기능이 어떻게 변이되고 있는

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앞의 장면별 자료 분석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別春香傳은 방자의 작중 기능에 관한 한 대체로 京板 30장본과 다르지 않다. 上典인 이도령을 적절히 비판하고 實利를 취하겠다는 의지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¹⁵⁾, 이도령의 일방적 支配아래 놓여 있는 도구적 존재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방자는 제3자적 입장에서 개입하여 기본적으로는 안내자적 기능을 수행하되, 부차적으로는 비판자적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이중성을 지닌 중간자인물로 파악된다.

그런데 申在孝本 男唱 春香歌에 와서는 방자의 기능이 完板 別春香傳에 비해서 크게 달라지고 있다. 먼저 장면 1)의 산천경개 풀이를 보면, 사건 전개가 이도령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대신에 방자는 극히 피동적인 인물로 행동한다. 장면 2)의 이도령과 방자, 장면 3)의 춘향과 방자가 서로 酬酌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방자는 다만 성실한 使者로 일관한다. 추천하는 여자가 누구냐고 묻는 이도령에게 成千總의 庶女로서 代婢贖身한 春香이라 하여 자세히 알리고, 또 춘향에 대해서는 이도령의 家勢와 훌륭한 人器를 들어 호강하기 절호의 기회임을 말한다. 그러나 상전에 대해 일종의 悖德의 성격을 지닌 才談이나 辭說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리하여 방자의 존재의미를 특징짓는 비판자적 기능이 거의 消去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방자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도령과 춘향의 실제적인 만남도 춘향에 의해 새로 香丹이 개입한 후 두 당사자의 적극적인 의사표명에 의해 이도령이 직접 춘향의 집을 찾음으로써 가능했고¹⁶⁾, 또 결연과정에서는 후원자 月梅가 不忘記를 받아내고 合歡酒를 나누는 등의 주도적인 개입이 있었던 만큼¹⁷⁾, 춘향의 光한루 招來와 結緣에 있어 방자의 역할은 극히 미약한 것이었다. 방자가 성실한 使者로 개입하고 있음

15) 장면 1)의 “글공부세우논도령님이경쳐아라무엇하시랴오”와 장면 2)의 산천경개 풀이, 장면 3)의 “네교퇴한면의니의슈로할터있다시양말고뱃비가조”나 또 장면 4)의 “동의서아귀터나이다” 등에서 단편적으로 드러난다.

16) 앞의註 11) 참조.

17) 장면별 자료 분석 5)를 참조할 것. 특히 “광한루의다려다가백넌가약땀을터나노도 있난여엿여자업의호래할수없어자네허락들자하고자네찾아나왔으니자네의사어떠한가”라고 한 이도령의 말은 月梅의 주도적 개입을 용인하고 있다.

에도 불구하고, 춘향에 의해서 새로 향단이 개입하게 된 것은 방자의 안내자적 기능이 크게 약화된 것을 뜻하며, 향단이가 춘향의 使者이듯이 방자 또한 이도령의 使者에 불과함을 말한다. 그는 다만 이도령의 下手인일 따름이며, 따라서 주체적, 능동적인 역할이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그는 “양반앞의 선하인이제임의로할수있소”¹⁸⁾라고 한 그 자신의 말과 같이 당위적 規範에 충실하고 下層民으로서의 자아의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인물이다.¹⁹⁾ 그리하여 申在孝 改作本의 경우 방자는 일방적으로 이도령에 하속되는 부수적 인물일 따름이며, 그의 역할 또한 전반적으로 극히 미약해서 이도령과 춘향의 兩者關係는 그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三者關係로의 질적 변화로 나아가지 못한다.²⁰⁾

한편 完板 烈女春香守節歌는 房子의 비판자적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점에서는 別春香傳이나 京板本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안내자적 기능은 月梅의 주도적 개입과 通引의 등장으로 인해 크게 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申在孝 改作本과 닮아 있다. 장면 1)의 산천정개 풀이과정에서 이도령에 대해 “글공부하시난도령님이 경처차저부질업소”했다든지, 장면 2)의 춘향 초래과정에서 “방첩스군수현감관장임내업지발가락이두뺨가웃식되난양반외입징이덜도무수이보려하되...중략...황공하온말삼으로초리하기어렵니다”하였다든지, 또는 장면 4)의 “동으서아구트난이다”와 같은 예들은 別春香傳이나 京板本의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장면 4)의 書冊 풀이는 他本에 비해 한층 더 비판적이다. 그리고 춘향이 “내가밋친자식일다도령임이었지나를알아서부른단마리냐이자식네가니마를종지리시열씨앗듯하여나부다”라고 하여 근거없는 비난을 퍼붓자, “니가네마를할이가업시되네가글체니가글야너글은니력을드러보와라계집아히힘실노추천을하량이면네집후원단장안의줄을먹고남이알가물을가운근이미고추천하난계도레의당연하미라...중략...박속갓탄네

18) 장면별 자료 분석 5)를 참조할 것.

19) 장면 3)에서 방자가 춘향에게 “내가이리권하기는위초요비위조라너위하여하는말을알만해도안들으니가기는간다마는”이라고 하여 춘향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아 이를 자아각성이나 비판의식에서 이해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20) 방자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이도령과 춘향의 兩者關係를 질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방자가 독자적 성격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춘향은 이도령의 방자에 상응하는 인물로 喬丹을 개입시켜 결국 〈이도령 vs 춘향〉의 관계로 사건이 진행된다.

살거리빚운간의헛득헛득도령임이보시고너을불으시계니가무삼말을한단말가” 하고 응수한 것을 보면, 방자는 대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함께 주체적 의지를 가진 자각한 인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別春香傳이나 京板本에서와 같은 안내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²¹⁾ 그리고 이는 후원자 月梅의 주도적 개입과 通引의 등장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에게서는 부정적인 역할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²²⁾ 월매의 개입은 그 자신에 의해 이미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²³⁾ 이도령에 의해 더욱 분명한 것이 된다. 이도령이 “오날밤의오날쫓선춘향어모보려왔건이와자니썰춘향과빅년언약을밧고자하니자니의마음이엇더한가”했을 때, 월매는 이미 緣分임을 夢兆로 짐작했으나 앞일을 생각해서 몇번 다짐을 받은 후에 허락하고, 酒盤을 준비해서 合歡酒를 나누게 한다. 이처럼 月梅의 주도적 개입으로 방자의 안내자적 기능이 거의 無化되고 있는 점은 申在孝 改作本과 아주 흡사하다.²⁴⁾ 요컨대 完板 烈女春香守節歌는 批判者와 案内者라고 하는 방자의 二重的 기능 중에서 批判者로서의 一面性만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이라 하겠다.

4. 房子的 作中機能 變異가 지닌 意味

우리는 앞에서 房子 人物의 작중기능이 春香傳 異本間에서 어떻게 변이되고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 작품의 내적 구조로 보아, 방자는 이도령과 춘향에

- 21) 그것은 장면 3)에서 방자가 춘향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이면의복기여광한누로도 라와”한 것이라든지, 또 이도령의 심부름에 두 번씩이나 응하지만 결국 제대로 그 구실을 다하지 못한 데서 단적으로 엿볼 수 있다.
- 22) 이도령이 춘향과 백년가약을 맺고자 왔다는 말에 月梅가 걸오로는 “그런말삼마르시고노르시다가음소셔” 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이마리참마리안이라이도련임춘향을엇는다하니너두사을물나뒤을늘너한말리엿다”
- 23) 춘향의 광한루 來到가 龍꿈을 꾸는 월매의 허락에서 이루어졌고, 춘향이 이도령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의 대화를 참고할 수 있다. (월매)이고너딸단여온나도련임이무어시라하시던야(춘향)무어시라하여요조곰안져짜가가것노라이러난이전역의우리집 오시마허음세다(월매)글헤엇지더답하였난야(춘향)모른다하였지요(월매)잘하였다
- 24) 이러한 현상은 춘향의 신분상승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는 申在孝本과 烈女春香守節歌의 先後問題와 함께 別稿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의해 성립되는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긴장체계에 부수적 인물로 등장하는 데 불과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改作 過程을 통해 상당한 기능상의 변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京板本의 경우, 30장본에서는 방자가 표면상의 상하 연속관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독자적 성격을 가지고 이도령과 춘향의 결연과정에 제3자로 개입하여 안내자인 동시에 비판자라고 하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한다. 물론 이에 방자 자신의 자아 각성과 관련한 의지적 사고와 행동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상하 신분관계를 바탕으로 한 내적 체계에서 방자의 태도가 여전히 상층에 이끌리고 있다는 점은, 그의 자아 각성 내지는 서민의식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南原古詞에서는 방자가 보다 성숙된 자아의 의식을 지니고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자세를 취한다. 이 때문에 비록 그의 안내자적 순기능을 통해서 이도령과 춘향이 만나게 되고 또 결연에 이르게 되지만, 더욱 적극성을 띠고 상전인 이도령을 비판하고 폄하하는 그의 부정적인 기능을 통해서 봉건제적 신분제의 불합리성이 지적되고 物質的, 實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실적 사고의 팽배를 보여준다. 이처럼 南原古詞가 경판 30장본에 비해 量的 擴大와 병행해서 상당한 質的 變異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는 달리, 경판 16장본은 30장본에 대해서 量的 縮略 이외에 人物의 기능적인 변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完板本의 경우, 別春香傳(30장)은 방자의 작중기능에 관한 한 京板 30장본과 다름이 없다. 부분적으로 上典을 비판하고 實利를 추구하기도 하지만 이는 다만 그 자신이 이도령에 대해 일방적인 예측을 容認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그가 독자적 성격의 중간자 인물임을 뜻한다. 그리고 그의 이중성은 이같은 독자적 성격에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申在孝 改作本은 사건전개가 이도령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방자는 다만 순종적, 피동적 인물로 행동할 뿐이며 그의 역할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한 마디로 그는 이도령에 전적으로 예측되는 도구적 존재에 불과하여 他本에서와 같은 중간자 인물로 성립될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完板 84장본 烈女春香守節歌는 방자의 역할 수행에 있어 일종의 畸形을 낳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방자는 어느 정도 자주적 의지를 지니고 상전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통해 제3자로서의 독자성을 확보하려 하지만 春香과 月梅, 通引 등의 개입으로 차단되거나 저해되고 만다. 그 결과 그는 이도령에 일방적으로 예측되는 도구적 존재임을 면치 못한다. 이 점에서 申在孝 改作本과 同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방자의 자주적 의지와 관련한 비판자적 기능은 京板이나 別春香傳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이도령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취하는 인물이 이도령을 상전으로 그에 예측되어 도구적 존재로 행동하게 된다는 불합리성을 드러내게 된다.²⁵⁾

이상의 변이양상은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서사구조의 변화, 인물의 형상화 수준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이본간의 외적 거리를 따질 때, 京板 30장본과 16장본, 完板 別春香傳을 하나의 부류로 묶고(안내자적 기능 \geq 비판자적 기능 >0), 南原古詞(비판자적 기능 $>$ 안내자적 기능 >0), 申在孝 改作本(안내자적 기능 ≥ 0), 完板 烈女春香守節歌(비판자적 기능 $>$ 안내자적 기능 ≥ 0)를 각기 따로 독립시켜 그 개별성을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본간의 유사성과 개별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의미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異本 生成과 관련한 改作意識이다. 房子の 작중기능의 양상으로 볼 때, 판소리 春香歌의 辭說 定着은 대체로 서민의식이 지배층의 一方的 支配를 인정하지 않는 수준으로 성장한 데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본다. 그 같은 이유로 하여 作中에서 방자는 獨自의 성격을 지닌 中間者 인물로 案内者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京板 30장본과 完板 別春香傳이 個別的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그러나 보다 의도적인 改作者의 출현으로 각기 개별적 의미를 지닌 異本들이 생겨났다. 京板 30장본과 16장본이 상당한 수준의 양적인 縮略에도 불구하고 방자의 작중기능에 전혀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개작의식을 지니지 않은 單純 筆寫者에 의해 이본이 생성되었음을 입증한다. 이에 비해 南原古詞는 방자 인물에 대해 더 한층 개별적 성격을 부여하고, 그를 통해 價値觀이나 社會相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申在孝 改作本(男唱 春香歌)과 烈女春香守節歌는 방자를 봉건적 신분제하의

25) 방자 인물의 기능 약화 내지는 기능상의 불합리성은 기본적으로 춘향의 신분상승에 기인한다고 본다.

當爲의 規範에 충실한 인물로 그 역할을 제한하는 방향²⁶⁾에서 각기 커다란 變異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前者의 改作者가 未來 志向的 改作意識을 지녔다고 한다면, 後者의 改作者들은 過去 志向的 改作意識의 소유자들이었다고 하겠다.

둘째, 판소리 春香歌 또는 「原春香傳」과의 相關性 문제이다. 이른바 「原春香傳」이 애초에 廣大와 같은 基層 庶民들의 독자적인 文化 享受의 욕구에 기초한 것이라면, 작중기능이 크게 위축되어 房子의 存在意味가 消去²⁷⁾되고 있는 申在孝本이나 烈女春香守節歌와는 그 성격상 분명한 한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申在孝本과 烈女春香守節歌가 「原春香傳」에 내포되어 있는 새로운 문학적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퇴영적, 부정적 방향으로 왜곡, 굴절시킨 것이라 한다면,²⁸⁾ 南原古詞는 이를 한층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 성숙시킨 것이라 하겠다.²⁹⁾ 따라서 申在孝本이나 烈女春香守節歌에서처럼 방자 인물의 작중기능이 크게 위축되는 異本은 春香傳 자체의 존재의미에 대해 일종의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세째, 인물의 형상화와 관련한 리얼리티의 문제이다. 房子는 조선조 사회에서 衙前, 마름, 청지기(守廳), 伴人, 差人 등과 같이 특이한 부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회구조적 측면으로 보아 틀림없는 中間者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들은 중간자적인 자신들의 처지를 활용하여 때로는 상층에 依支해서 反社會的인 악명을 떨치기도 하고, 때로는 同類나 下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욕구나 意志를 대변하기도 하였다.³⁰⁾ 판소리 春香歌나 「原春香傳」이 이와 같은 강한 現實性을 외면하고 성립된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방자를 중간자

26) 申在孝 改作本이 일관된 개작의식에 의해 合理性을 갖추는데 비해서, 完板 烈女春香守節歌는 절충적인 개작으로 不合理性을 드러내고 있다.

27) 房子 외에 작품 전편에서 郎廳, 吏房, 軍奴 使令, 刑吏 등과 같은 이른바 房子의 存在의 역할도 他本에 비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28) 이러한 견해는 春香의 身分問題와 관련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 (鄭夏英, 春香傳 改作에 있어서 身分問題, 韓國言語文學 卷17~18호輯, 韓國言語文學會, 1979 참조)

29) 방자의 비판자적 기능에서 절정을 이루는 惡戲장면은 이미 廣寒樓 樂府에서 “喚起眠儻乘夜出…怪底官僮魔好事 打深人意應迴廊…千呼不響亦堪憎…須叟拍手花間出”이라 하여 그 흔적을 볼 수 있다.

30) 김열규, 韓國文學史, pp. 396~399, 探求堂, 1983 참조.

인물로 설정하고 있는 京板 30장본이나 完板 別春香傳 등은 방자에 대해 신분이 갖는 양면성을 제대로 인식한 것이며, 形成期的 作品으로서의 순수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申在孝 改作本이 양반층의 판소리 애호와 같은 大衆的 願望에 순응한 결과로 그와 같은 리얼리티를 상실한 데³¹⁾ 비해 南原古詞는 오히려 더욱 철저히 방자의 二重性에 초점을 맞추어 행동하는 인물로 형상하고 있다. 이 점에서 南原古詞 改作者의 현실인식과 통찰력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5. 결 론

小説 讀解의 일반적인 경향에서 우리는 대개 어떤 특정한 人物의 行動을 통하여 그 인물의 精神的, 氣質的 특성에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되고 또 때로는 그것이 가능하게도 된다. 여기에는 人物 혹은 性格이 곧 行動을 결정하게 되고, 따라서 모든 행동은 심리학적으로 의미있을 뿐 아니라, 충분히 해명될 수 있는 것이라는 前提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소설에서처럼 기본적으로 自我와 世界 사이의 葛藤과 對立, 對決關係를 문제삼는 경우라면, 인물의 분석이나 이해가 獨立的, 個別的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한 인물의 인물됨은 다른 인간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며, 人物의 重要性 또한 問題 解決과 관련한 그의 역할이나 機能的 側面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春香傳에서 房子는 마땅히 주목받을 만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는 애초부터 機能的인 人物이며, 더우기 작중에서 판소리 예술의 주요담당층이라 할 수 있는 下層民의 삶과 의식을 효과적으로 대변하는 ‘판소리적 예술장처’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의 작중기능은 時間的 相距를 두고 이루어진 改作過程을 통해

31) 申在孝 改作本이 등장인물의 리얼리티에 한계가 있는 것은 春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즉 妓生이 아닌 春香으로서의 身分上昇은 妓生 身分이 갖는 兩面性, 즉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 빚어진 改惡에 다름 아니다.(鄭夏英, 앞의 논문, p. 400 참조)

상당한 수준의 변이를 나타내고 있다. 경판 30장본과 16장본, 완판 別春香傳에서는 방자가 이도령과의 신분적인 연속관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독자적 성격을 띠는 중간자로 개입해서 이중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긴장관계의 해소’와 관련한 案内者的 順機能에 비해 上典에 대한 批判者的 逆機能이 소극적, 부차적이라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그것이 가벼운 웃음을 연출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南原古詞는 방자의 비판자적 역기능을 더욱 지배적인 것으로 변이시킴으로써 下層民의 사회개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申在孝 改作本은 방자를 다만 이도령에 일방적으로 예측되는 도구적 존재로 변이시킨 결과 그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이도령과 춘향의 兩者關係가 三者關係로의 질적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 더우기 完板烈女春香守節歌의 경우는 申在孝本의 영향으로 보이는 절충적 구성으로 인해 그같은 도구적 존재로서 상전에 대해 비판자로 기능하는 불합리성을 드러내고 말았다.

이와 같은 異本간의 變異樣相은 다른 무엇보다도 더욱 분명하게 改作者의 改作意識의 정도와 성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南原古詞와 申在孝 改作本이 더욱 적극적인 개작의식이 낳은 産物이며, 또 前者의 改作者가 未來志向의 改作意識을 지녔다고 한다면, 後者의 改作者는 過去志向의 改作意識의 소유자라 하겠다. 그런데 이 때 房子의 존재들의 消去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申在孝 改作本은 그 성격상 「原春香傳」에 대해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방자의 작중기능이 현저히 약화된 것은 基層庶民들의 독자적인 文化享受의 욕구에 의해 창작된 「原春香傳」에 나타난 새로운 문학적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異本の 출현은 春香傳 자체의 存在意味에 대한 일종의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끝으로 인물의 형상화와 관련한 리얼리티에서 「原春香傳」이 강한 現實性을 바탕으로 성립되었다고 한다면,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방자 인물이 中間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申在孝 改作本이 大衆의 願望에 순응한 代價로 리얼리티를 상실한 데 반해, 南原古詞는 보다 적극적인 現實認識을 통해서 房子의 中間者의 二重性에 접근한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完板本 別春香傳(30장본), 金東旭 외 共編,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第五冊)
京板本 春香傳(30장본), 앞의 책
京板本 春香傳(16장본), 古典教材刊行會編, 韓國古典小說選, 새글사, 1975.
南原古詞, 金東旭, 金泰俊, 薛盛璟 共著, 春香傳比較研究, 三英社, 1979.
申在孝 改作本 春香歌(男唱), 姜漢永 校註 申在孝관소리辭說 여섯마당集, 형
실출판사, 1982.
完板本 烈女春香守節歌(84장본), 李家源 주, 改稿春香傳, 정음사, 1988.
金烈圭, 韓國文學史, 探求堂, 1983.
金泰俊, 申在孝의 「春香歌」 研究, 韓國小說研究, 太學社, 1983.
拙稿, 古小說의 中間者 人物에 관한 研究, 慶星大學校 論文集 제11집 3권,
1990.
鄭夏英, 春香傳 改作에 있어서 身分問題, 韓國言語文學 제17~18合輯, 韓國言
語文學會, 1979.